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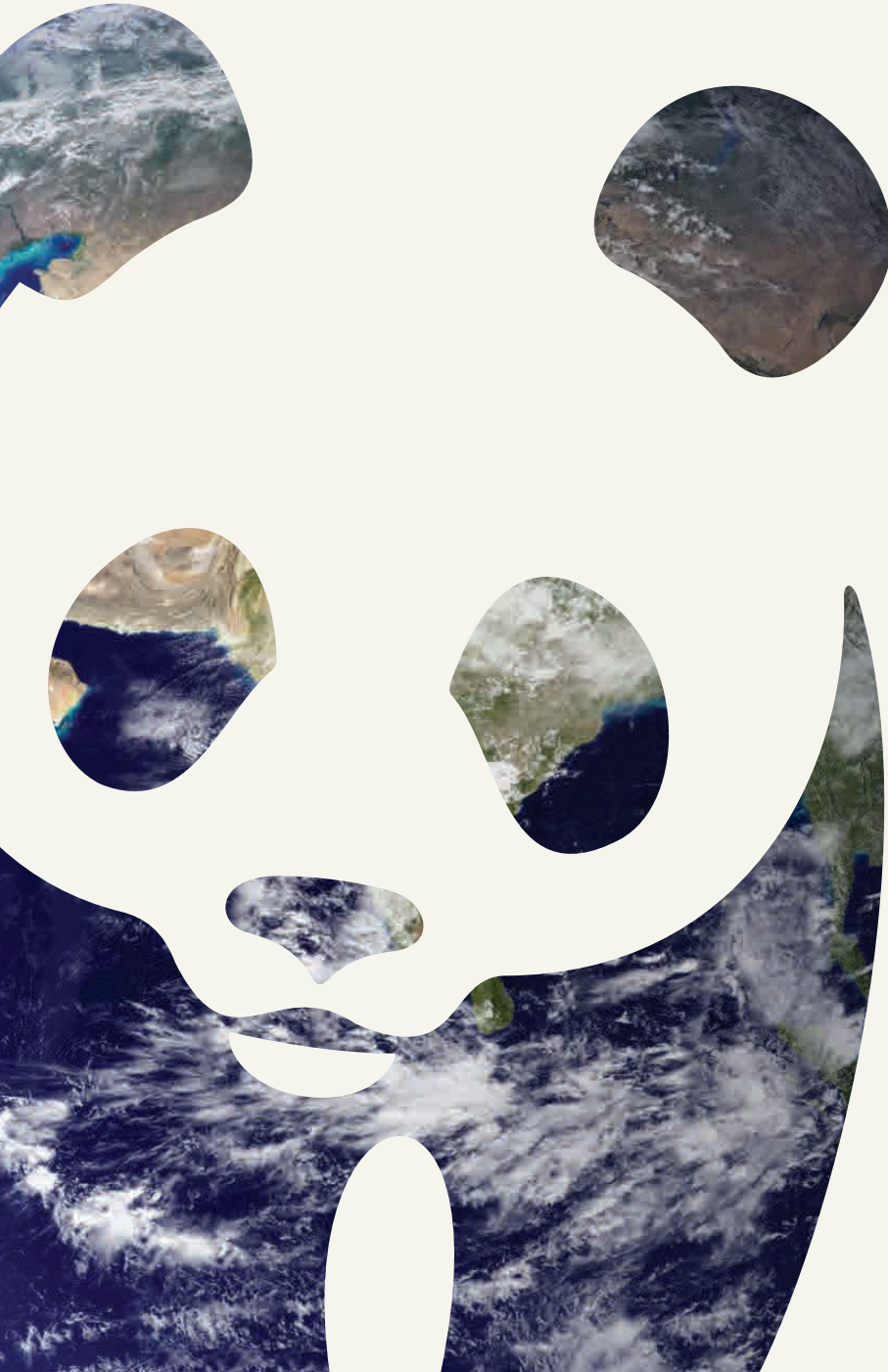
**WWF**

세계자연기금

**ANNUAL  
REPORT**

KR

**2016**



together possible™

####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 개국에 500만명의 회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WWF는 현재 기후·에너지, 해양, 산림, 담수, 식량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WWF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600+ 판다와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등 대중들이 자연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비롯하여, 해양보전과 기후·에너지 이슈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16

**발행인:** 윤세웅

**발행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WWF-Korea)

**발행일:** 2016년 6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NASA

본 보고서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Text 2016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목차

WWF-Korea 대표 인사말	4
WWF: 한국을 넘어 세계로	6
WWF-Korea 우선 보전과제	8
전 세계 주요 활동	26
2016년 회계 정보	30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과제들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황해는 수심이 얕은 세계 최대 대륙붕 지역 중 한 곳으로, 어장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수심만의 철새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황해에서 식량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수억에 달한다.

하지만 황해는 전 세계에서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으로 손꼽힌다. 과도한 개발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해양자원 소비로 인해, 황해는 남획과 급속한 연안개발, 환경 오염 등 온갖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황해 생태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WWF-Korea 대표 인사말

© WWF-Korea / Suk Joon Jang



##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만들기

WWF-Korea 대표로 보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WWF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도 진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인류가 자연에 끼치는 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WWF-Korea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를 펴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3개 있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자연자원의 소비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들을 국내 외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폭적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이상 기온,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 문제는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연에서 먹거리를 얻고 자연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연을 고갈 직전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협정 등 최근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는 바람직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합의된 사항을 각국에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지만,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이 큰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할 것 입니다.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곧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혁신적 해법을 찾는 일에 한국이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동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윤세웅**



© Yeonsoo Kim

# 우리 공동의 유산 보호

두루미는 한국인의 정신과 평화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이다. 한국의 강유역, 습지, 눈은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최고의 보금자리이자 먹이터이다.

현재 한국의 비무장지대에는 해마다 멸종위기에 놓인 두루미(*Grus japonensis*) 약 800마리와 재두루미(*Grus vipio*) 약 2,000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분절되면서 두루미들의 생존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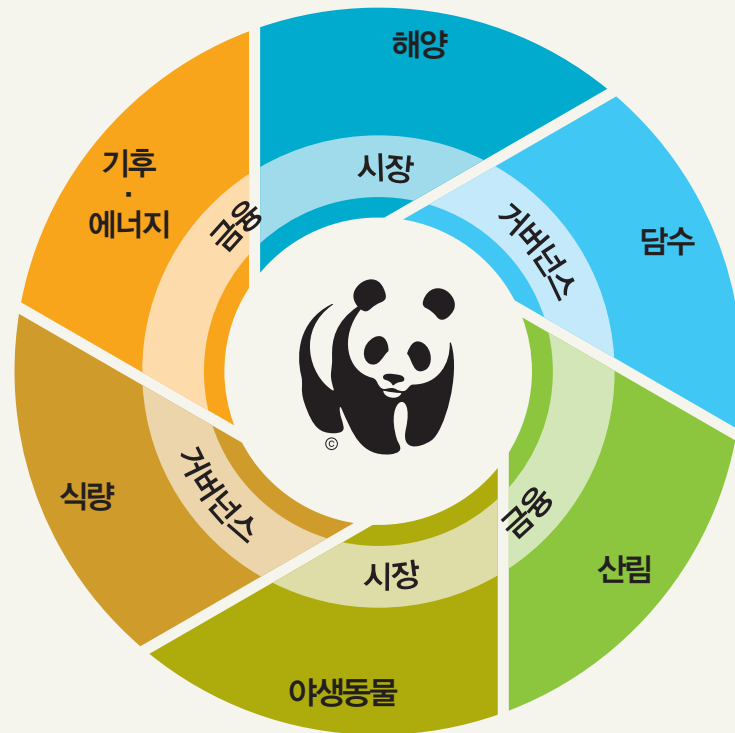
# WWF: 한국을 넘어 세계로

WWF-Korea는 지난 50여 년간 인류와 자연을 위해 보전 활동을 펼쳐 온 WWF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지구에 영향을 가하는 시급하고 복잡한 현대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인 WWF는 100여 개국을 기반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규모의 활동을 한다. 특히 지역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16년, WWF는 지구와 자연에 관련된 중대한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글로벌 전략 개편과 전환 계획을 추진했다.

이 전략은 6개의 글로벌 목표와 3개의 동력(드라이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 세계 동향과 오늘날의 주요 환경 문제를 반영할 뿐 아니라 WWF의 활동을 단순화하고 통합시켜 더 큰 영향력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도록 한다.



우리의 활동은 글로벌 우선 발전 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WWF의 글로벌 목표 및 성과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기대상승효과는 다음과 같다.



WWF 글로벌 목표

## 기후·에너지

기후변화에 회복력있는 저탄소 사회 구축



## 해양

생산적이고 회복력있는 해양생태계 복원과 이를 통한 인류의 생계수준 향상



## 야생동물

야생 생물종 개체 수 보전 및 복원



##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웰빙 증진 및 유지



##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담수 보전



##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마련



동력

##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 증가



## 거버넌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 WWF-Korea 우선 보전과제

WWF는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자연보전 활동을 진행했으며, 2014년 WWF-Korea가 공식 출범하였다. WWF-Korea는 설립 이후, 최우선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고 WWF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 및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WWF-Korea는 향후 두 가지 분야의 보전 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 해양 및 어업

한국은 세계 최대 어업국 중 하나로, 어업이 국가 생태수용량(bio-capacity)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어족 자원의 85% 이상이 남획과 과잉 개발에 시달리면서 해양 생태계와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WWF-Korea는 우선순위 지역에서 건강한 해양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 공동체와 손잡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방위에 걸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전체 생태발자국 중 탄소 생태발자국이 73%를 차지하며,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는 세계 8위를 기록할 만큼 상위 탄소 배출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WWF-Korea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Antonio Busiello / WWF-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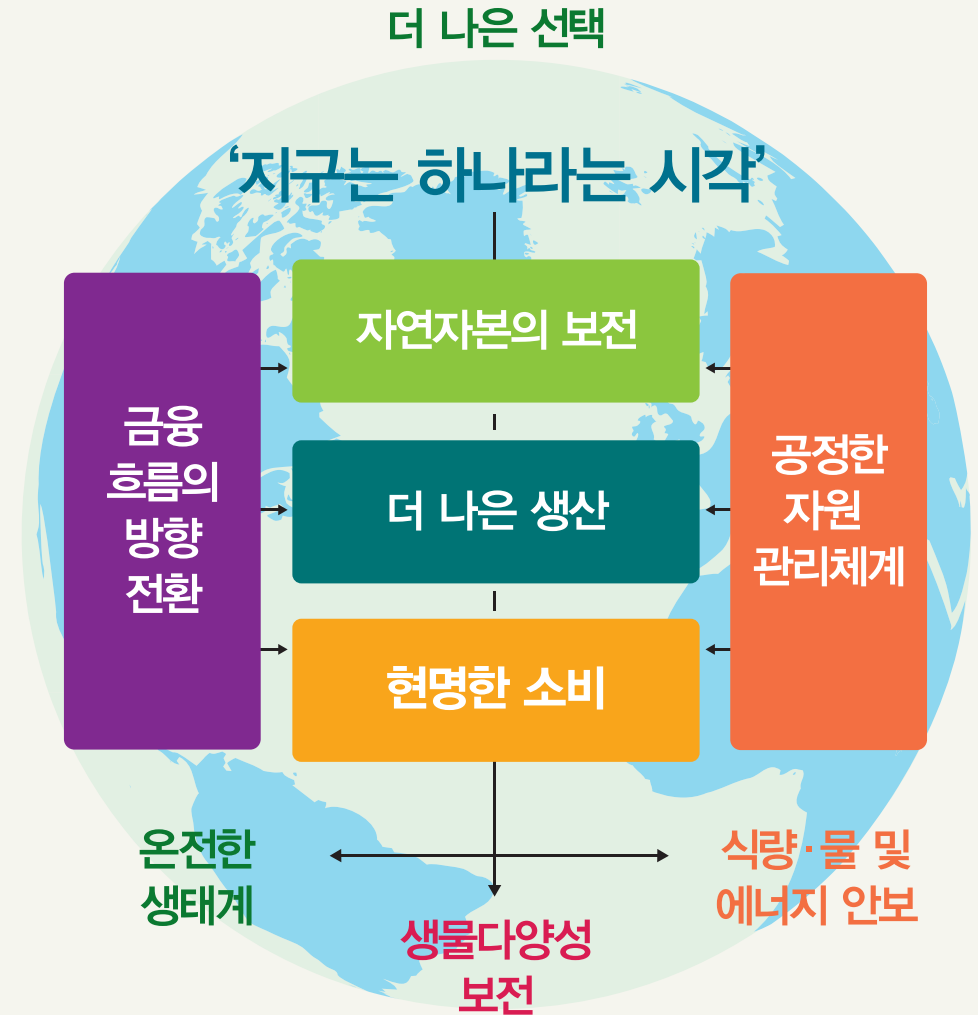


© Claire Doole / W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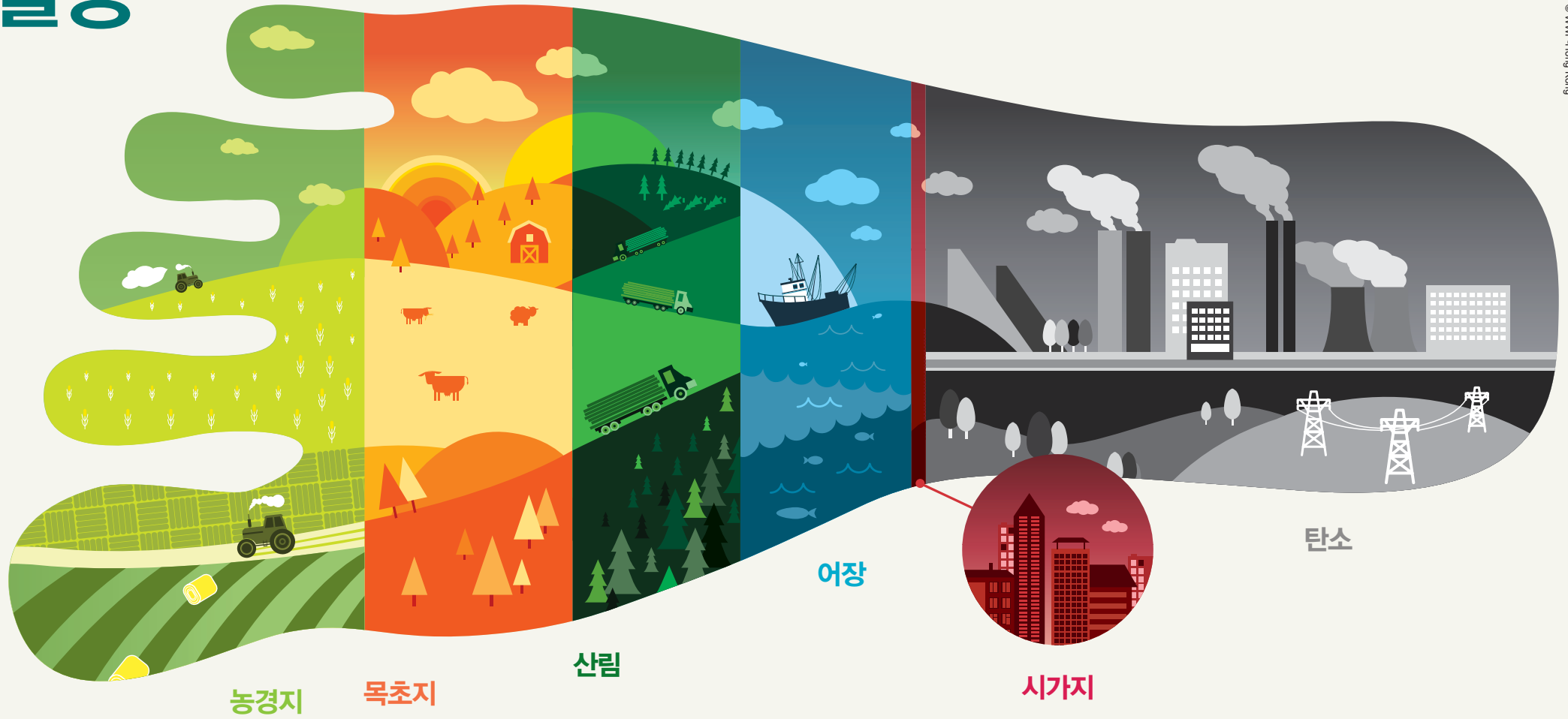
#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해결책

WWF는 함께 노력할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시장변화를 통해 생산 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개인의 현명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금융 흐름에 영향을 주는 한편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다.

WWF가 제시하는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One Planet Perspective)'은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준다.



# 2016년 주요 활동



© WWF-Hong Kong

WWF-Korea는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학생, 전문가, 기업, 정부 부처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6년 대표적 활동으로는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 발간을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생태적 건전성 및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우리 바다와 어업

## 목표

WWF-Korea는 2020년까지 국내외 우선순위 해역에서 해양 건강성을 크게 개선 한다.

## 주요 활동

올해 WWF-Korea는 세 가지 축-정부 정책 개선, 관련 산업계 관행 개선 및 해양보호구역 증진-에 초점을 맞춰 해양 보전 활동의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고안했다.



2020년까지 한국의 주요 원양 및 연안 어업 우선순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크게 증진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업계 관행을 개선한다.



2020년까지 주요 참치 수출 어업 및 소비량이 높은 국내 어업 분야에서 국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해양보호구역 비율을 영해의 10%로 확대해 생태계 건강성 개선과 어족 자원 복원에 기여한다.



# 해양 및 어업에 관한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

해양 관련 주요 출판물을 잇달아 발간하여 시민과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와 모범 관행을 소개하고 있다.



## 해양생명보고서

'해양생명보고서(Living Blue Planet Report)'에서는 전 세계 해양의 건강성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인류의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해양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가 49%나 감소하는 등 파국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획과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의존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 해양경제 되살리기

'해양경제 되살리기: 8대 실천 조치(Reviving the Oceans Economy: The Case for Action)'는 해양이 지구에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주로 다룬다.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활 조건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WWF는 보고서를 통해 풍성한 해양의 가치가 세계 주요 경제국의 경제 규모에 필적하지만 해양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 자원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8대 실천 조치를 제시한다.



## 해양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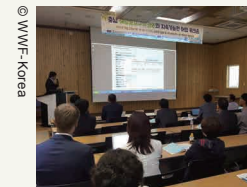
'해양보호구역: 해양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Marine Protected Areas: Smart Investments in Ocean Health)'에서는 사람과 기업, 자연의 이익을 위한 해양 건강 복원 활동에서 해양보호구역(MPA)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핵심 서식지와 종, 생태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산성, 회복력을 복원·보호·강화할 수 있다는 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혜택을 남겨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 수산 기초조사 보고서

'한국 수산 기초조사 보고서(Korea Fisheries Assessment Report)'는 한국 해양수산 부문의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근해 어업과 원양 어업, 양식업, 무역 등 다양한 어업 형태에 관한 데이터 분석이 담겨 있으며, 어업 관련 정책과 관리 방식, 해산물 시장과 유통에 대한 관점을 개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연안 및 원양 어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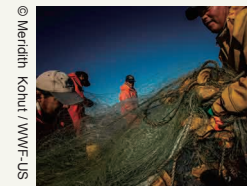
출판물 발간 외에도 건강한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의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WWF-Korea

## 해양보호구역(MPA) 강화

한국은 영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비율이 1.5%에 불과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WWF-Kore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2020 목표 달성 방식을 논의하였다.



© Meredith Kohut / WWF-US

## 시장변화

WWF는 자연산 해산물을 위한 해양관리협회(MSC) 인증과 양식(farmed) 해산물을 위한 양식관리협회(ASC) 인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국내외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증 제도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WWF-Korea는 지속가능한 해산물의 국내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책임감 있는 관리로 MSC와 ASC 인증을 취득한 해산물만을 공급받도록 기업들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산물 가치 사슬(seafood value chain)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예컨대 어민, 양식업자, 가공업자, 무역업자, 소매업자, 식당 운영주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업계를 이끄는 이들이 해법 마련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해양 건강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해산물 이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WWF-Korea는 올해에도 주요 기업 및 정부 대표들과 함께 MSC와 ASC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다양한 조사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저탄소 미래 구축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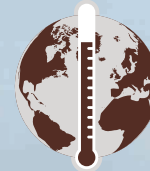
WWF-Korea는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상향된 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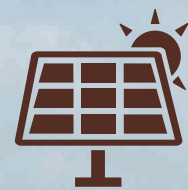
WWF-Korea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하고 장기적인 청정에너지 관련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확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 대안을 함께 고안하고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방안을 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구'는 '하나'라는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 WWF-Korea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배출량 감축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WWF가 추구하는 과학적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의 일환이기도 하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에는 현재 각국의 2030년 감축 공약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WWF-Korea는 한국이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구현되는 저탄소 사회를 달성할 시나리오와 관련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미 전 세계 1,000여 개 도시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혹은 온실가스 80%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고, 100여 곳의 주요 기업들도 WWF가 지원하는 과학적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 따라, 과학과 배출량 감축을 연계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속가능성, 기후·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

기후·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출판물 발간을 통해 대중과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하였다.



## 지구생명보고서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비롯한 지구의 현주소 및 이러한 상황이 인류와 야생 동식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술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요약본과 완본, 두 가지로 발간되었으며, 국문으로는 2014년 말 요약본이 먼저 발간되었고 완본은 올해 번역·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40년간 척추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52%나 감소하게 된 원인과 자연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 아니라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인류가 지금처럼 자연자원을 이용한다면 이를 재생하는데 지구 1.5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리 벌목하고, 해양의 재생 능력을 앞질러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으며 산림과 해양의 흡수 능력을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 에너지 보고서

'에너지 보고서: 2050년 100% 재생에너지(Energy Report: 100% renewable energy)'는 WWF가 2011년 발간한 보고서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2050 에너지 비전과 로드맵 제시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며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떠한지 소개하기 위해 요약본을 국문으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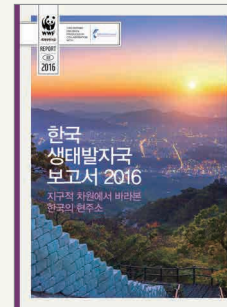
미래의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와 관련한 국제 연구로는 가장 과학적이고 규모가 큰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종 에너지 수요는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를 다뤘다.



##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에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가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에게 가하는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6차 대멸종(mass extinction)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WWF의 보고서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Climate Change on Species)'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이를테면 생물종이 새로운 기후 패턴과 서식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Korea Ecological Footprint Report 2016)'은 한국이 소비하는 자연자원의 양과 이로 인해 지구에 가해지는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국문, 영문으로 각각 발간하였다.

한국의 경우 자연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국내 생태계의 재생 능력보다 8배나 크고, 자연에 대한 인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구 3.3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잠재적 해법뿐 아니라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One Planet Perspective)'을 개인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WWF-Korea는 출판물 발간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해 동안 WWF-Korea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 파트너를 통해 여러 편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전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 교수의 연세대학교 특별 강연 "2052년, 향후 40년을 향한 글로벌 전망: 젊은 리더를 위한 함의"

WWF-Korea는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요르겐 랜더스 노르웨이 경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기후 전략 교수의 특별 강연을 개최하였다. 약 70명이 특강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 달성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다.



**지구촌 전등끄기 어스아워(Earth Hour)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1년에 1시간 불을 끄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지역 차원의  
실천과 세계적 차원의 연대를 추구한다.**

## 사람과 함께하는 WWF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사회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WWF-Korea는 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배포 및 미디어 활동, SNS 메시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WWF의 비전을 나누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자연보전 이슈를 알림과 동시에 사람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주요 목적이다.

### 2016년 어스아워

올해 열렸던 지구촌 전등끄기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은 시민과 함께한 대표적인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어스아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WWF 주도의 기후변화 실천 활동으로 일 년에 한 번 개인과 기업, 정부와 공동체가 1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편, 정부와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매년 3월 세 번째 토요일, 오후 8:30분부터 9:30분까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016년에는 10번째 어스아워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 178개국에서 개인과 지역공동체, 기관, 기업 등이 참석하면서 이전의 참여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KT와 삼성화재의 후원을 통해 100대 기업이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남산타워와 승례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 20곳에서도 행사에 동참했다.

홍정욱 (주)헤럴드 회장과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학교 교수, 걸그룹 소녀시대,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자 등도 어스아워 캠페인에 참여해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JTBC 방송사와 비정상회담 출연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스아워 캠페인을 생중계하였으며, 생중계 영상은 3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SNS에서는 '지구촌 전등끄기'라는 해시태그가 3,000회 이상 언급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KBS와 연합뉴스 등 주요 TV 뉴스 채널뿐 아니라 163건의 신문 기사를 통해 소개되었다.



# 협력하는 WWF

## WWF-Korea 홍보대사

TV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타일러 라쉬(Tyler Rasch)는 자연에 대한 큰 관심을 바탕으로 2016년 4월 WWF-Korea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타일러 라쉬는 TV 프로그램과 신문 인터뷰를 통해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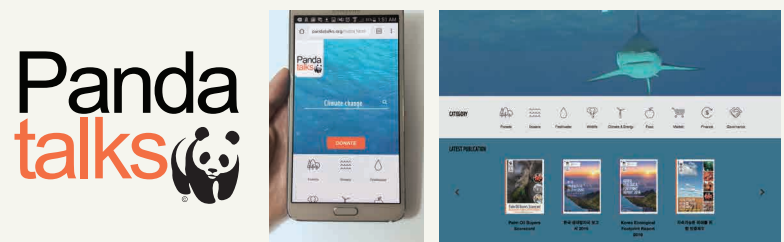
타일러 라쉬는 2016년 6월에 대왕판다 서식지인 중국 시안(西安)을 방문하여 WWF가 대왕판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직접 보고, WWF와 중국 정부와 현지 공동체, 자연보전 담당자와의 협력 등 WWF의 보전 활동 성과를 소개하였다.

타일러 라쉬가 대왕판다 보호구역에 돌아보고 경험한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생물종과 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 판다 토크 플랫폼 'Panda Talks Platform'

WWF-Korea는 WWF의 수많은 연구와 출판물, 기사 등을 검색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판다 토크 플랫폼(pandataalks.org)'을 개발하였다. 본 검색 사이트는 휴대전화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용자가 찾은 내용을 SNS로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보전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의 파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발간물 및 이용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WWF는 기부자와 활동가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 부문, 시민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 WWF-Korea의 활동에 동참한 협력 기관은 다음과 같다.

### NEW:KIT

#### 뉴킷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의류와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브랜드로, WWF-Korea와 파트너십을 통해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생물종 보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시민에게 함께 전달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 덕평자연휴게소

#### 덕평자연휴게소

국내 최고 복합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소 내에 멸종위기종 고래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시설을 연못에 설치하고, 방문객들이 연못에 던진 동전을 WWF-Korea에 기부하고 있다.

### LOTTE DEPARTMENT STORE

####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환경그리기 대회에 WWF상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연보전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Boogie Bear

#### 부기베어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동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매 시즌 개발하여 아동 신발로 선보이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멸종위기동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시에, 판매수익의 일부를 WWF-Korea에 기부하고 있다.

### SAMSUNG

#### 삼성화재

국내 최고 손해보험회사인 삼성화재는 WWF-Korea 설립 이래로 어스이워 캠페인 참여 및 후원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Enercell

#### (주)에너셀인터네셔널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을 판매하는 에너셀인터네셔널은 '해양보호구역 해양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를 발간하는데 후원했다.

### EVERLAND RESORT

####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2016년 판다월드를 새롭게 오픈하면서, WWF의 로고이기도 한 판다 등 멸종위기종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발간 및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 ASSETPLUS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가치투자의 철학을 원칙으로 하는 독립계 자산운용회사로, WWF-Korea와 협력하여 '한국 수산 기초 조사 보고서', '에너지보고서 요약본',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간하였다.

### coway

#### 코웨이

환경가전 시장의 대중화, 전문화, 고급화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라이프케어 기업이다. 코웨이는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에 매년 100공석 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고, WWF-Korea와 협력하여 이 우물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웨이 리퍼브 제품에 대해 WWF-Korea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과 생명을 보전하는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 criteo

#### 크리테오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크리테오의 후원으로 '지구생명보고서 2014: 생물종과 공간, 사람과 장소'를 발간하였다.

### HERALD

#### (주)헤럴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모든 경영 판단 및 목표의 기초로 삼고 있는 60년 전통의 콘텐츠·친환경 기업 헤럴드는 국내 최초로 한국이 소비하는 자연자원의 양과 이로 인해 지구에 가해지는 부담에 대해 기술한 WWF-Korea의 '한국 생태 발자국 보고서 2016' 발간을 후원하였다.

### vonvon

### 서울특별시

### YULCHON

### 위메프

### TOM TOMS COFFEE

### 한국외국어대학교

### Coca-Cola

### HSBC

### jtbc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WWF

일부 환경 문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WWF-Korea는 올해 WWF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WWF Asia-Pacific Network) 회의를 개최하였고 30명이 넘는 아태 지역 WWF의 CEO와 이사가 참석했다.

아태지역 차원에서 호랑이 보전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고, 외부 파트너들과 양방향 지식 공유 세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WWF-Kore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전 문제 해결을 주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 철원 현장 답사

한국 최북단에 있는 철원은 비무장지대(DMZ)와 쌀, 두루미로 유명하다. 철원의 넓은 평야와 습지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는 곳이다.

WWF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회의 이후 철원을 찾은 아태지역 WWF CEO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두루미를 관찰하며 한국의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WWF는 전 세계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새로운 국제 목표이다. 2015년 9월, 193개의 유엔 회원국이 향후 15년간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의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 환경 보전을 통합하여 다룬 국제 의제이다.

WWF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공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2012년 의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을 시점부터 유엔 회원국들과 활발히 논의했다. 2015년 의제 공식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학계,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을 논하면서 전 세계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생각한다. 각국이 한층 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진할 기회가 될 것이다.

WWF-Korea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옹호/지지 활동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전 세계 주요 활동

해외에서도 WWF와 그 파트너들은 여러 분야에서 자연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목표 이행에 힘쓰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대왕판다 개체 수 복원

세계자연보전연맹(UCN)은 멸종위기 적색목록(red list)에서 대왕판다(giant panda)의 멸종 위기 현황에 대한 공식 지위를 상향 조정했다. 2014년 국가 조사에 따르면 중국 야생지역에서 확인된 대왕판다는 총 1,864마리로, 2003년 (1,594마리) 이후 개체 수가 17%나 상승한 수치이다. 1961년부터 WWF가 로고로도 잘 알려진 대왕판다가 '멸종(endangered)' 위험은 넘겼지만, 아직 멸종위협에서 안전하다고 하기는 이르다. WWF-China 대표 로체핑(Lo Sze Ping)은 "대왕판다 지위 조정은 수십 년에 걸친 중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왕판다 보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며, 상징적 종(iconic species)에 대한 투자가 사회와 생물종 모두에게 이득이 됨을 보여 준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WWF 사무총장 마르코 람베르티니(Marco Lambertini)는 "판다 개체 수 복원 사례는 과학과 정치적 의지,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야생동물을 살리고 생물다양성을 높인 사례"라고 말했다.



## 100년 만에 증가한 호랑이 개체 수

2010년, 3,200마리로 추정되었던 야생 호랑이 개체 수가 3,890마리로 늘어났다. 인도와 러시아, 네팔, 부탄 등지의 호랑이 개체 수 증가를 위한 보전 활동, 조사 방법 개선, 밀렵 척결 및 보호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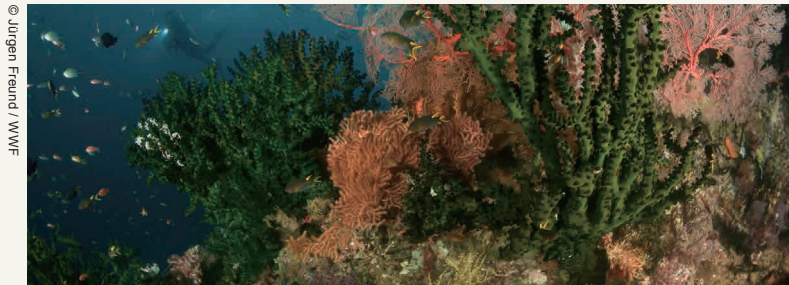
개체 수 발표는 제3회 호랑이 보전 아시아 장관회의(Asia Ministerial Conference on Tiger Conservation)를 하루 앞두고 발표되었다. 이 회의는 2020년까지 야생 호랑이를 2배로 늘리려는 WWF의 Tx2 목표를 위해 최근 추진 중인 활동이다.



## 말레이시아 최대 해양공원 지정

올해 5월, 산호 삼각해역(Coral Triangle)에 있는 보르네오 섬 북쪽 연안 해역 중 100만 헥타르 규모가 툰무스타파 해양공원(Tun Mustapha Park)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주 정부와 사바 공원청(Sabah Parks), WWF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전 활동 및 정책 지지, 인식 제고 캠페인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50개가 넘는 섬을 아우르는 이 해양공원을 보전함으로써, 풍부한 산호와 맹그로브, 해초 서식지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어장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WWF의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이 해역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그 가치가 8,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추진 중인 원유 시추 개발 사업에 비해 그 가치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WWF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현지인 8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원 보전에 찬성하고 있다.



© Jürgen Freund / WWF

## 인도양 참치 보전을 위한 첫걸음

2016년,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25%를 관리하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마침내 인도양에서 가다랑어 어획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치 관련 어업 위원회에서 자원 고갈에 대비해 어획량 제한 규정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IOTC 회원국이 이뤄낸 쾌거로, 인도양 가다랑어(skipjack tuna) 보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수년에 걸쳐 WWF가 협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IOTC에서 WWF의 캠페인 일부에 부응하여 황다랑어 어획량을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황다랑어는 어획량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고갈이 예상되는 어종이다.



© naturepic.com / Doc White / WWF

## 변화의 시대를 연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국 정부는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이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2°C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고, 각국의 배출량 감축 기여도를 2018년부터 5년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및 해양을 통한 흡수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기로 약속했다. 당사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재원을 계속 늘려간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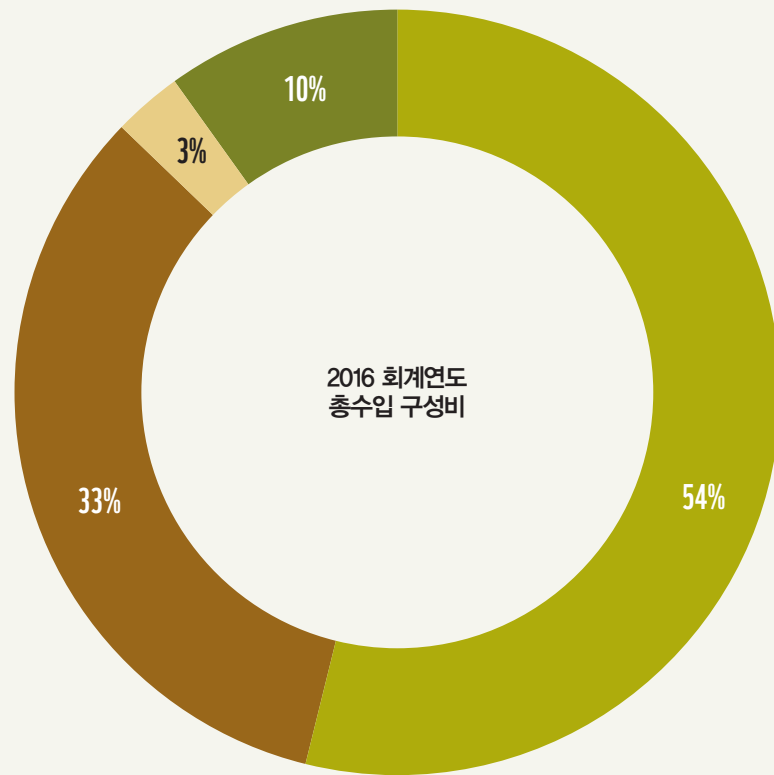




# 2016년 회계 정보

WWF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에 시작되어 이듬해 6월 30일에 종료된다. 하단의 표는 감사를 완료한 WWF-Korea의 재무 정보로, 2016 회계연도(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다. WWF-Korea는 2014년 3월에 설립되었기에, 2016년은 세 번째 회계연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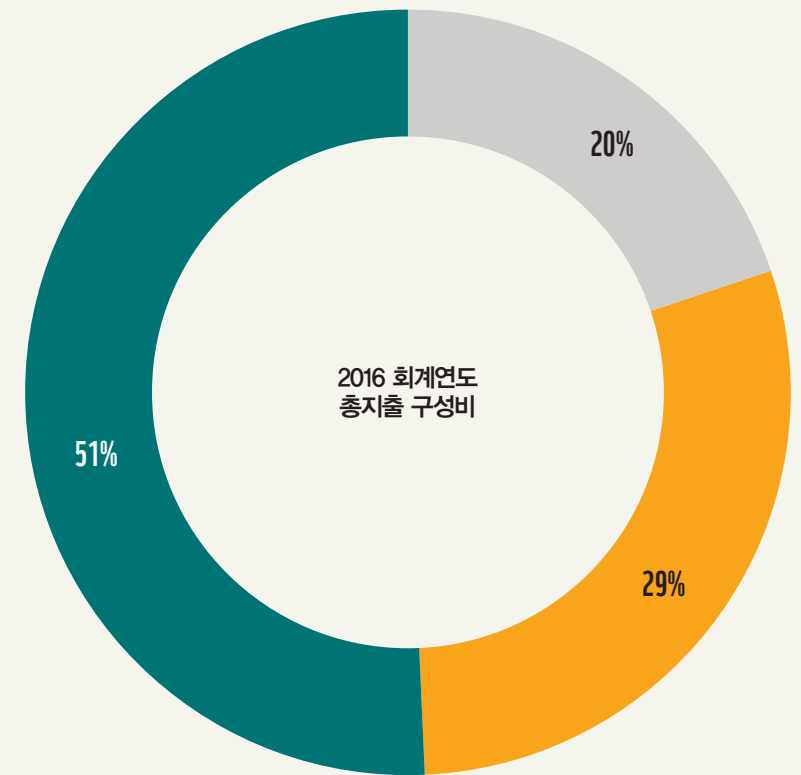
**수입** 2016 회계연도 총수입은 2,168,276,066으로, 직전 회계연도(1,148,291,182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총 수익 중 개인 후원금의 비율은 54%로 수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WWF 네트워크의 지원금 비율은 33%이며 기업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이 각각 10%와 3%를 차지한다.



- 개인 후원금
- WWF 네트워크 지원금
- 정부 지원금
- 기업 후원금

**지출** 2016 회계연도의 총지출은 2,188,974,931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870,557,554원)보다 17% 상승하였다. 지출 구성을 보면 자연보전 프로그램 및 인식 제고 활동 지출이 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금 마련 비용이 29%, 운영비가 20%를 차지하였다.

WWF-Korea는 3~5년 이내에 총지출의 80%를 보전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보전 프로그램에의 지출 비율을 지속해서 확대하고자 한다. 설립 초기에 후원자와 기부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금 마련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운영비 지출 비율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기타 사업을 통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운영비
- 기금 마련 비용
- 자연보전 프로그램

# WWF-Korea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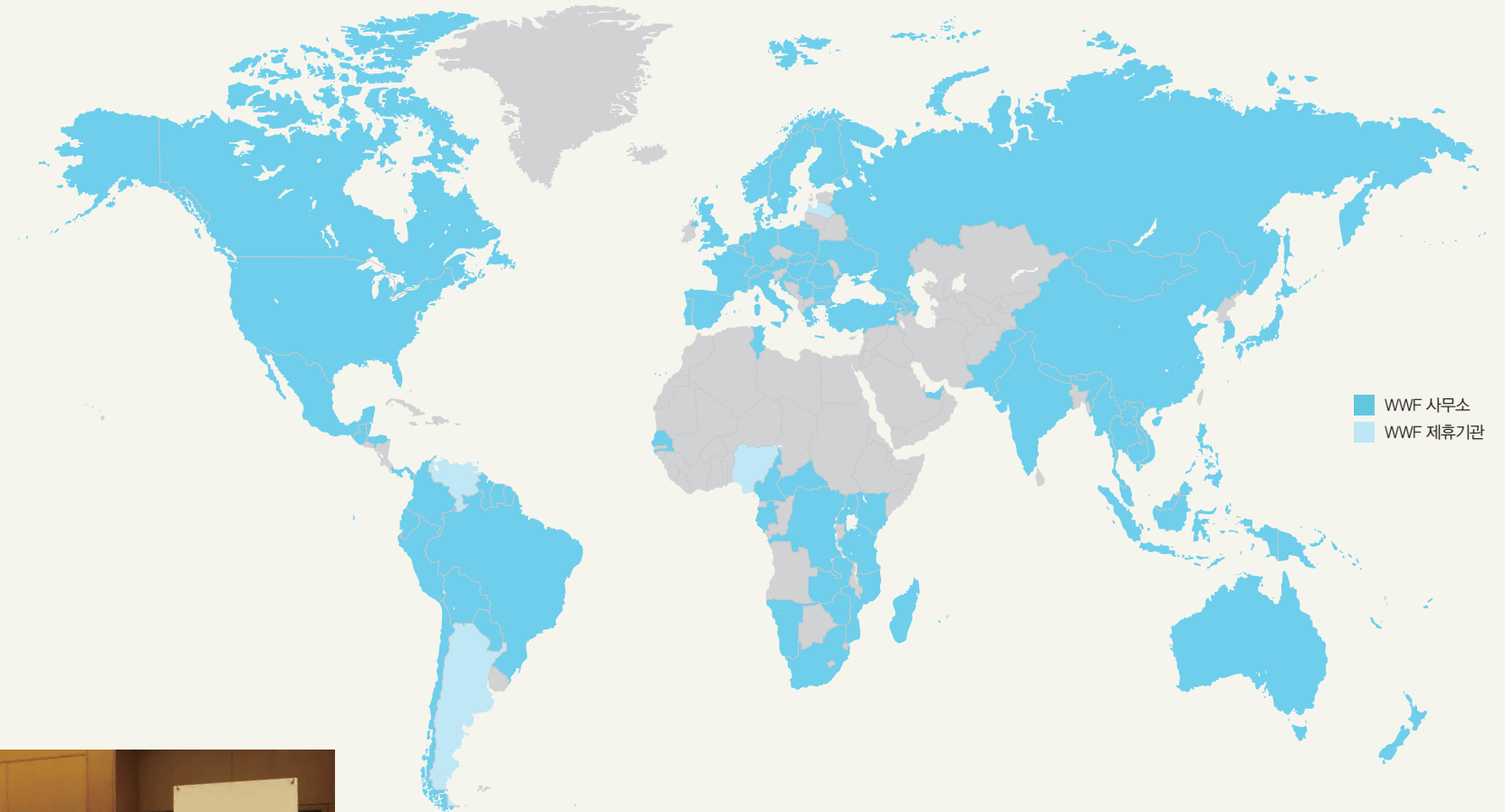
## 공동 이사장

양인모  
장 폴 페텍

## 이사

강희철  
손성환  
크리스토퍼 헤일즈  
함중호

# WWF 글로벌 네트워크



## WWF-Korea

© WWF-Korea



## \* 100개국, 80곳, 하나의 WWF

가봉 -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리스 -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독일 - 라오스 - 러시아 - 루마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잠비크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베트남 - 벨기에 - 벨리즈 - 볼리비아 - 부탄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네갈 - 세르비아 - 솔로몬제도 -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연합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에콰도르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온두라스 - 우간다 - 우크라이나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잠비아 - 조지아 - 중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칠레 - 카메룬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콜롬비아 - 콩고민주공화국 - 크로아티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령 가이아나 - 피지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홍콩

## WWF 제휴기관

Fundación Para la Defensa de la Naturaleza (베네수엘라) - Fundación Vida Silvestre(아르헨티나) - Pasaulės Dabos Fondas(라트비아) -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나이지리아)

# 숫자로 본 WWF

1961/2014

WWF 국제본부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은 WWF-Korea가 설립된 해입니다.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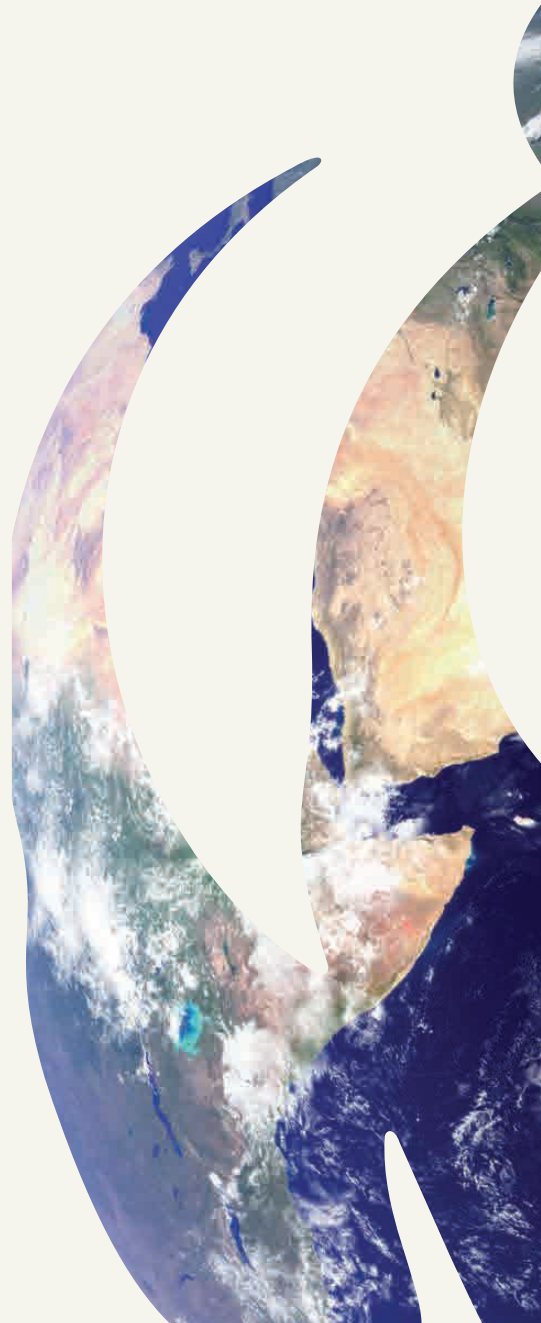
100,000명 이상이 WWF-Korea의 자연보전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00

WWF는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2

WWF-Korea는 해양 보전과 기후-에너지 이슈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세계자연기금(WWF)은 자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korea.or.kr](http://wwf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